

외교부 :

한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 추진하길

외교부 대변인 림검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중한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한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일 발표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이 한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국가주석 습근평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림검은 중한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라며 중국은 양국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는바 한국측과 함께 수교 당시의 초심을 지키고 선린우호의 방향

을 확고히 하며 호혜상생의 목표를 견지해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 신화넷

이재명 , 한국 국무총리로 김민석 지명

한국 대통령 이재명은 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위원 김민석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이재명은 당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 정부 인사 배치를 발표했다. 그는 김민석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

과 민생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국가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말했다. 1964년 서울에서 태어난 김민석은 국회의원에 4번 당선되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등 직무를 담당했다.

이재명은 이날 이종석을 국정원장으로, 강훈식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위성락을 안보실장으로 지명했다.

절차에 따라 모든 내각 지명자는 국회 청문회를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지명된 사람은 국회의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모두 임명될 수 있다. / 신화넷

이재명 ,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한국 MBC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인 4일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실 대변인 강유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라고 명령했으며 이는 그가 취임한

이후 첫번째 행정명령이다."고 밝혔다. 강유정은 또 이재명이 5일 오전 지방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회의를 소집

하고 재해 및 치안 사건 관련 안전 문제를 논의할 것을 명령하였다고 덧붙였다. / 인민넷 - 조문판

한국 국회 〈내란특검법〉 통과

한국 전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발동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내란특별검사법〉(내란특검법)이 5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국회 본회의에서는 〈김건희특별검사법〉(김건희특검법)도 함께 통과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

령이 비상계엄령을 발동한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발의한 〈내란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같은 해 12월 31일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도 통과되지 않아 자동 폐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1월 다시 〈내란특검법〉을

발의하였으나 최상목은 재차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뒤 4월 국회에서 또다시 표결에 부쳤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녀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김건희특별검법〉을 발의하였다. 해당 법안은 같은 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2024년 1월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야당은 같은 해 9월 다시 법안을 제출하였으나 해당 법안은 국회 통과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야당의 재상정, 국회 부결 등의 과정을 여러차례 반복하였다. / 국제방송

【뉴스인물】

한국 신임 대통령 이재명



1990년대 중후반, 인권변호사로 근무하던 이재명은 취약계층 권익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한국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에 치러졌다. 4일 새벽, 예상된 승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은 "주어진 사명을 잊지 않고 직무와 책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그의 주요 경쟁자인 김문수는 패배를 선언했다.

이재명은 1964년 한국 경상북도 안동시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다. 가

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공장에 취직했으며 공장에서 일하던 시기 왼쪽 팔을 다쳐 6급 장애로 판정받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공부를 포기하지 않았고 선후하여 고졸입학시험과 대학입학시험에 합격했으며 1982년에 한국 중앙대학교 법학원에 입학했다. 졸업후 이재명은 변호사로 되었다.

2010년, 이재명은 경기도 성남시 시장으로 당선되었으며 재임 기간 청년수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쳤다. 2018년, 이재명은 경기도 지사로 당선되었다. 2022년 8월,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당수로 선출되었고 2024년 8월에 성공적으로 연임했다.

2017년, 이재명은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가했으나 당내 예비선거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3월, 한국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은 당시 최대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윤석열정부

를 여러차례 비판했으며 심지어 급진적인 수단까지 취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항의했다. 2023년 8월 31일, 이재명은 윤석열의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언했다. 단식투쟁 19일 만에 이재명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2024년 12월 3일 저녁,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이재명은 답을 넘어 국회의사당에 진입, 그 과정은 모두 생중계되었다. 다음날 새벽, 한국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령을 무효로 선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4월 27일, 이재명은 89.77%의 득표율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었고 5월 10일, 한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재명은 선거운동 기간 인공지능 등 신홍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가정과 소규모 기업의 활력을 불어일켜 공정한 경제를 실현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리고 외교면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외교'를 전개하여 한국 외교 영역을 확대하



1982년, 이재명이 교복차림으로 어머니와 함께 대학 개학식에 참석했다. / 인민넷

고 외교 다각화를 실현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과 조선 관계면에서는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완화시키고 한국과 조선 관계를 회복함과 아울러 화해와 협력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동할 것을 주장했다. / 신화넷



어린시절 이재명의 성남시 집

/ 자료사진



어린시절 이재명과 그의 초등학교 졸업장

/ 중앙텔레비죤방송넷

미국 , 가자지구 휴전 초안 부결 중국측 대표 : 매우 실망스럽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4일 팔레스티나 가자지구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표결에 부쳤다.

안보리 15개 리사국중 14개국이 찬성표를 던졌으나 상임리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미국의 독선적인 행동은 안보리 리사국들의 광범위한 반대에 부딪혔다.

유엔 주재 중국대표 부총은 다음

과 같이 표시했다. 중국측은 표결 결과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 결의안 초안은 죽음과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가자지구 민중의 가장 절박한 요구이자 국제사회의 압도적인 목소리를 담고 있다. 미국은 거부권을 다시 람용해 가자지구 200여만명의 민중을 계속 무자비하게 어둠 속에 빠뜨리게 하고 있는바 이는 반드시 국제사회의 고문을 받아야 한다. / 신화넷

김정은 , 로씨야 안보회의 비서 쇼이구 회견



5일, 조선 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4일 래방한 로씨야연방 안보회의 비서 쇼이구를 회견했다.

보도는 회담에서 쌍방은 양국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 공동의 핵심리의 수호, 양국 여러 분야 협력 사항 그리고 지역과 국제 형세에 대해 토론 및 교류하고 협장이 완전히 일치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우크라이나위기 등 국제적 정치 문제에

서의 로씨야의 입장과 대외정책에 대해 조선은 '계속하여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조선과 로씨야 양국의 조약 조항을 책임감있게 리행할 것이라고 표했다.

보도는 쇼이구가 로씨야 쿠르스크 지역 수복전에 참여한 조선 군인에 대한 로씨야 지도층의 각별한 사의를 전했다

보도는 회담에서 쌍방은 조선과 로씨야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계속하여 확대 발전시키려는 양국 지도층의 념원을 표달했다고 밝혔다. / 신화넷

조선 '중대 사고' 구축함

균형성 완전 복원, 안전하게 진수하여 계류

조선중앙통신의 6일 보도에 따르면 '중대 사고'가 발생한 조선의 신형 구축함이 6월초에 이미 균형성을 완전 복원하고 5일 오후에 함을 안전하게 종진수하여 부두에 계류시켰다.

보도에 따르면 구축함 사고 복구와 관련하여 현지복구추진조는 6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 사업 정형을 보고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구축함의 선체 전반 상태에 대한 전문가팀의 재검사를 거친 후 구축함은 다음 단계의 복구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다음 단계의 세밀 복구작업은 라진배수리공장의 건도크(干船坞)에서 진행되게

되며 작업 기간은 7~10일간으로 예견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복구추진조의 사업을 지도하고 있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조춘룡은 함의 완전한 복구는 여감없이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2차 전원회의 소집전에 결속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앞서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조선에서 새로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은 5월 21일 청진조선소에서 진수 과정에 '중대 사고'가 발생했다. 조선은 즉시 조사조를 구성하여 전면적인 조사를 벌였다. / 신화넷

인도 경기장 밖 압사 사고 발생

11명 사망 50명 부상

인도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4일 인도 남부 도시 벵갈루루의 한 크리켓 경기장 밖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당했다.

보도는 당시 수천명의 크리켓 팬들이 모여 벵갈루루 로열첼렌저스팀이 인도 크리켓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따낸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며 부상자들은 림근 병원으로 호송되었고 사망자 수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벵갈루루는 인도 카르나타카주의 수부이다. 카르나타카주 제1부장관 시바쿠마르는 숨진 사람이 있음은 실증했으나 구체적인 인수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사람들을 통제할 수 없었다. 지나치게 몰린 것에 사과한다."고 말했다. 인도 신에너지및재생가능에너지



6월 4일, 인도 남부 벵갈루루 압사 사고 현장 부근에서 사람들이 혼미 상태에 빠진 소년을 구조하고 있다. / 신화넷

부 장관 프랄하르트 조시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계획이 주밀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이 같은 막심한 손실이 초래되었다. 가슴 아프다."고 밝혔다. / 신화넷